

# 클럽 활동을 통한 일본문화교육

-미국 BGSU의 사례를 중심으로-\*

강영부\*\*

---

## 目 次

---

1. 도입
  2. Japanese Club이 만들어진 배경
  3. Japanese Club 소개
  4. Japanese Club의 역할과 성과
  5. 마무리
- 
- 

## 1. 도입

일본어교육의 목적은 일본어학습자들이 하여금 일본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주어진 상황에 따라 적절한 일본어를 구사하여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어교육의 목적이 이처럼 일본인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것이라고 할 때, 앞으로의 일본어교육은 종래의 일본어능력만을 키워주는 교육방법에서 탈피하여 일본인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관계되는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 일본어교육(즉, 종합학습으로서의 일본어교육)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1)</sup>. 그런데 실제로 현재의 일본어교육 현장에서는 한국인학습자들의 일본어학습 목적이 시험대비(입시, 학점이수, 승진)나 자격취득(JPT, JLPT 등)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개설된 과목자체도 학생들의 현실적인 요구(needs)에 맞추다 보니, 문법, 어휘, 청해, 회화 등 일

---

\* 본 논문은 2006년도 경희대학교 지원에 의한 결과임.

\*\*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부교수

1) 종합학습으로서의 일본어교육에 대해서는 細川(2002, 2005) 참조.

본어능력을 키우기 위한 과목 위주로 개설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더구나 수업이 한정된 시간과 스케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본문화 등에 관한 내용을 폭넓게 다루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대학의 경우는 일본어 전공을 통해서 일본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아직도 교과서나 단순한 멀티미디어교재를 통해서 배우는 방법이 대부분이어서, 교환학생제도나 일본어연수제도를 이용해서 일본에 가지 않는 한 일본문화를 직접 체험할 기회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에 따라서는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일본의 애니메이션, 만화 등에 대해서 토론하거나 일본가요나 원어연극 등을 공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학생들의 자치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한정되어있고 내용도 체계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아 다양한 일본문화를 접하기가 어렵다. 또한 이러한 동아리활동은 수업과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어서 수업에서 다루지 못하는 일본에 관한 다양한 내용들을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종합학습으로서의 일본어교육이라는 목표를 지향하는 현 시점에서, 학교수업의 연장이자 그 보완수단으로서의 일본문화체험교육이 클럽활동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미국의 the Asian Studies of the Department of German, Russian, East Asian Languages at Bowling Green State University 내의 Japanese Program(이하, BGSU Japanese Program)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 2. Japanese Club이 만들어진 배경

미국에서 Japanese program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대학처럼 하나의 학과나 전공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the Department of Asian studies 또는 Asian Studies Program과 같은 단위 속에서 하나의 수업프로그램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BGSU Japanese Program의 경우도 the Department of German, Russian, East Asian Languages의 Asian Studies Program<sup>2)</sup> 내에서의 일본어와 일본에 관련된 수업프로그램을 말한다.

2) BGSU(Bowling Green State University)의 홈페이지는 [www.bsu.edu](http://www.bsu.edu)이며, 그 중에서 Asian Studies Program에 대한 소개는 [www.bgsu.edu/departments/asia/Home/index.htm](http://www.bgsu.edu/departments/asia/Home/index.htm)에 자세히 나와 있다. 그리고 Asian Studies Program을 소개하는 동영상도 최근에 만들어졌는데 홈페이지에서 here to view multimedia introduction of the Asian Studies Program 부분을 클릭하면 동영상으로 볼 수 있다. 이 동영상 속에는 Japanese Club에 대한 내용도 많

프로그램 구성은 언어코스(Language Courses)가 초급일본어(Elementary Japanese) I/II, 중급일본어(Intermediate Japanese) I/II, 3학년 일본어(Third Year Japanese) I/II, Japanese for business로 이루어져 있고, 핵심과정(Core Courses)과 선택과정(Elective Courses)은 중국과 일본의 예술(Art Of China&Japan), 멀티미디어를 통한 일본문화(Japanese Culture; Muti-Media Approach), 전근대일본(Pre-Modern Japan), 근대일본(Modern Japan), 시사일본어(Selected Topics In Japanese), 일본어연구(Studies In Japanese), 일본 전통 음악(Music In Japanese Culture), 그 외 2개의 아시아 관련 과목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BGSU에서의 Japanese Program은 하나의 수업프로그램이고 공식적인 단위체제가 아닌데다가, 일본어 관련 수업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그만두고 다른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일이어서, 학생들 간에는 Japanese Program에 대한 소속감이나 결속력이 매우 약한 경향이 있다. 게다가 BGSU Japanese Program의 경우 1983년까지만 해도 일본어를 담당하는 교수가 시간강사로 근무하다가 1년마다 경력을 쌓고 떠나버리는 식으로 과목이 운영되다 보니 학생과 강사들 간의 유대관계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연히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어교육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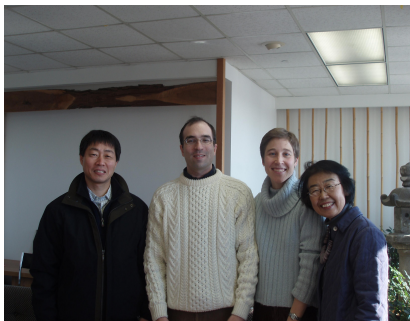
현재 BGSU에서 Japanese Program을 맡고 있는 전임강사(full time lecturer of Japanese language) Akiko K. Jhones(이하, A.K.Jhones)도 1983년에 이 대학으로 처음 왔을 당시에는 학기 당 두 과목의 수업을 담당하는 시간강사(part time lecture)의 자격으로 가르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Asian Studies Program의 지리학 교수인 Stephen S. Chang을 중심으로 본 대학에서의 일본어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임시직인 시간강사가 아니라 책임을 맡고 일할 수 있는 전임강사가 있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결국 1984년부터 전임강사로 일하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Ohio주에 HONDA 공장이 만들어지는 등 학교 주변에 일본 기업의 진출이 늘어나기 시작했지만 학생들 사이에는 국제화(globalization)라는 분위기가 거의 없었고 일본어수업에서도 중급으로 올라오는 학생들이 겨우 3-4명에 불과했던 시기였다. 사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일본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는 특별한 계기가 거의 없었고 일본이 거리상으로도 워낙 멀리 떨어져 있다보니 가까이 느끼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대상이 되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설사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해도 대학생이라는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행이나 연수 등을 통해서 일본문화에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다. 그러나 일본어를 수강한 학생 중

---

이 포함되어 있다.

에는 졸업 후 고향에 내려가 새로 생긴 일본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오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A.K.Jhones는 일본어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앞으로 졸업 후에 일본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도 일본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일본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50분 강의에 주 4시간 수업으로는 일본어를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빠듯한 상황이었어서 일본을 제대로 소개하기가 어려웠다. 그러한 고민 끝에 고안해낸 것이 「클럽활동(Club Activities)을 통한 일본 문화교육」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Japanese Club(일본어클럽)」<sup>3)</sup>이라는 학생자치 클럽을 만들어 문화적인 면은 수업시간을 쓰지 않고 클럽활동을 통해서 배우게 하며, 수업에서의 formal한 분위기와는 다른 informal한 분위기 속에서 음식문화, 차 문화, 서예, 종이접기, 연중행사 등 여러 가지 테마를 가지고 문화를 체험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클럽활동을 통해서 학생과 교사 간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럴수록 학생들이 일본어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부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A.K.Jhones의 예상대로 이 Japanese Club이 생긴 이후로 일본어 수업을 듣기 위해서 Asian Studies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2005년에는 35-36명, 2006년에는 45-46명으로 늘어나 앞으로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현재 Asian Studies Program은 Japanese Studies Program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구축해나가고 있으며, 2006년에는 일본문화와 일본문화를 각각 담당하는 교수가 추가될 만큼 일본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일본관계 교수들(맨 우측이 A.K.Jhones)



일본어 중급1 수업광경

3)BGSU Japanese Club에 대해서는 Asian Studies Program의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만들어 놓고 있다. [www.bgsu.edu/departments/greal/japanese/J\\_club.htm](http://www.bgsu.edu/departments/greal/japanese/J_club.htm)와 새로운 정보를 추가한 [www.bgsu.edu/studentlife/organizations/japanese-club/japaneseclub.html](http://www.bgsu.edu/studentlife/organizations/japanese-club/japaneseclub.html)의 두 개의 홈페이지가 있다. 이들 홈페이지에는 Japanese Club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Hiroko Nakamoto Galleries, Anime Club, Asian Community United 등 관련사이트의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 3. Japanese Club 소개

Japanese Club에서는 자신들의 활동을 알리기 위해서 독자적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거기에는 Japanese Club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sup>4)</sup>.

Japanese Club은 다문화 학생들(multi-cultural students)을 위한 하나의 조직이다. 이것을 만든 목적은 일본어와 일본문화에 관한 지식을 넓히고 일본어를 배우는 학생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클럽은 격주로 열리며, 일본과 일본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배운다. 각 모임 때마다 다도, 꽃꽂이, 종이접기, 일본음식 만들기, 일본무술과 같은 하나의 토픽이 주어지며, 그 외에 슬라이드와 비디오 쇼, 애니메이션, 교환학생이나 인턴십을 하고 돌아온 학생들의 발표 등 활발한 활동도 한다. 모임은 대부분 일본어연구를 위한 전용공간인 나카모토 룸(the Nakamoto Room)에서 열린다.(필자 역)

이 클럽에서의 임원(officers)은 회장, 부회장, 회계, 간사, 섭외, 홈페이지 관리, 고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회장은 4학년생(senior)인 여학생 Kathrine Valko가 맡고 있다. A.K. Jhones 교수는 고문(advisor)으로서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는데 있어서 좋은 조언자가 되고 있으며, 행사 때마다 제공되는 음식, 다과, 물건 등은 대부분이 그가 손수 집에서 준비해온 것들이다. 현재 모이고 있는 장소는 1991년에 BGSU 출신 일본인 미술가 Hiroko Nakamoto가 기증한 Hiroko Nakamoto Room이며, Offenhour West 건물 11층에 위치해있다. Japanese Club을 위한 이러한 독립된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따로 모임장소를 찾아다닐 필요 없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같은 해에 Hiroko Nakamoto Art Gallery<sup>5)</sup> 공간에 만들어진 일본의 전통적인 다실(Japanese Tea Ceremony Room)도 새롭게 마련되면서 행사 때마다 다도를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일본식 다실은 Nakamoto Art Gallery 내에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전시회를 찾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게 되어있다. Hiroko Nakamoto Room은 들어가는 문에서부터 일본의 현관문 양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내부에는 석등, 족자, 도코노마 등을 갖추고 있어서 일본의 주거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일본식 다실도 일본의 전통적인 양식 그대로 다타미를 깔아놓고 족자, 도코노마 등으로 꾸며

4) 원문 출처 [www.bgsu.edu/departments/greal/japanese/J\\_club.htm](http://www.bgsu.edu/departments/greal/japanese/J_club.htm)

5) Hiroko Nakamoto Art Gallery에 대해서는 BGSU의 School of Art 홈페이지 [digitalarts.bgsu.edu/art/galleries/index.cfm](http://digitalarts.bgsu.edu/art/galleries/index.cfm)를 참조할 것.

져 있으며 작은 정원에는 석등도 세워져 있어 다도를 일본에서와 똑 같은 분위기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다. 게다가 다도를 여러 관객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관객석도 일본양식으로 마련되어있다.

Japanese Club의 정기적인 모임은 작년까지는 목요일 밤 9:00~11:00로 정해져 있었는데, 작년 2007년 1학기(8월)부터 금요일 밤 10:00~12:00(Daylight Saving Time 중) 또는 밤 11:00~13:00(Daylight Saving Time이 끝난 후)로 옮겨졌다. 이러한 늦은 시각에 모임이 가능한 것은 학생들 대부분이 학교 기숙사나 주변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점, 이 시간에는 수업이 없으며 다음 날에도 수업이 없다는 점 때문이다.



Japanese Tea Ceremony Room



Hiroko Nakamoto Room

### BGSU Japanese Club에서 하고 있는 일본문화체험 행사 (2007년도~2008년도)

- 8월24일 첫 임원 모임 07:00-09:00
- 8월31일 환영파티(Welcome Party)
- 9월7일 게임의 밤(일본의 놀이 체험)
- 9월14일 Japanese Club 경매(일본물건 경매)
- 9월21일 드라마의 밤(일본 드라마 감상)
- 9월28일 여름 프로그램 presentation
- 10월12일 교환학생 프로그램 presentation
- 10월19일 종이접기(Origami)
- 10월26일 할로인(Halloween) 축제
- 11월2일 영화의 밤  
(이상, 오후 10:00~12:00)
- 11월5일(월) 교수님(A.K.Jhones) 댁에서 일본음식 파티
- 11월6일 JET 프로그램
- 11월30일 가라오케(일본 노래 불러보기)
- 1월11일 환영파티
- 1월18일 Japanese Club 경매(일본물건 경매)

- 1월21일 드라마의 밤(일본 드라마 감상)
- 2월1일 봄의 세츠분(Seesubun) 행사
- 2월8일 서예(Shodo)
- 2월16일(토) 일본음식점에서의 식사(Kotobuki 레스토랑)
- 2월22일 영화의 밤(일본영화 감상)  
(이상, 오후 11:00~오전 1:00)
- 2월29일 09:00~11:30 일본영화 감상(at the Gish Theatre)
- 3월15일(토) 다도(at Tea Ceremony Room, Art Building) 20:00~22:00
- 3월23일 유카타 입어보기
- 3월31일 오후 3:00~ 오후 6:00 교수님(A.K.Jhones) 댁에서 저녁파티
- 4월11일 벚꽃축제 준비
- 4월18일 벚꽃축제(at Alumni Center)
- 4월25일 카레-오케 파티  
(이상, 22:00~ 24:00)

위의 스케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계절과 절기에 따라서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1년 동안 이러한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일본문화를 하나하나 체험하게 되는데, 국경일, 연휴, 방학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주 또는 격주 클럽활동을 하고 있다.

모임 때마다 A.K.Jhones가 준비해온 간단한 일본다과를 자유롭게 먹고 마실 수 있으며, 본격적인 일본음식은 A.K.Jhones의 집에서 1년에 두 번 열리는 파티에서 맛볼 수 있다.



카레-오케 행사



A.K.Jhones 댁에서의 일본음식파티

또한 1년에 한번 가는 일본음식점 Kotobuki 레스토랑에서 특별히 주문한 도시락메뉴도 맛볼 수도 있고 카레-오케 행사 때도 일본식 카레라이스를 먹을 수 있어서 일본음식에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는 많은 편이다.

Japanese Club 경매는 주로 A.K.Jhones가 일본에서 사온 다양한 물건들, 예를 들면, 다양한 일본민속공예품, 일본문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책과 잡지, 일

본부채, 그림엽서 등을 가지고 이루어지며, 클럽 운영을 위한 후원금도 같이 받는다. 서예(Shodo)는 Fujiya Kawashima교수(이하, F.Kawashima)가 맡아서 직접 시범을 보여주고, 다음으로 견본을 학생들에게 나누어주어 그 견본에 따라서 연습하게 한다. 그 과정에서 순서대로 지도도 해주고, 학생들이 연습하는 동안 틈틈이 완성시킨 F.Kawashima교수의 서예작품이나 수묵화작품들은 나중에 기념으로 학생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한다.

여름 프로그램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presentation은 두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이 일본에서 배운 내용과 하루의 스케줄, 그리고 견학한 장소에 대한 지리, 역사, 재미있는 에피소드 등을 각자 돌아가면서 자세히 소개하고 느낌을 발표하는 기회이며, presentation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일본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일본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높여주는 좋은 기회가 되



F.Kawashima교수의 서예 강좌



귀국 교환학생 프레젠테이션

고 있다.

벚꽃축제(Ohanami Festival)는 TOCHIGI FUJI AMERICA MFG INC가 2002년 4월15일에 평화와 단결(Peace and Solidarity)의 상징으로 기증한 벚나무와 BGSU 졸업생 일본인 두 명이 기증한 두 구루의 벚나무가 계기가 되어 캠퍼스 내에 벚꽃정원이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매해 봄마다 Bowling Green에 와있는 일본인들, 지역주민들, 대학관계자 등을 초청해서 Japanese Club 학생들과 더불어 벚꽃축제행사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벚꽃축제행사에서는 푸짐한 일본음식이 준비되고 시작과 함께 학생들은 일본의 벚꽃(Sakura)노래를 부른다. 그와 함께 가라테(Karate) 시범, 종이접기(Origami), 요요 건지기(fishing Yoyoes), 복권(a raffle), 서예, 요코즈나(Yokozuna)의 타이틀을 걸고 하는 팔씨름(arm wrestling competition) 등 일본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도 열린다. 그 외에 F.Kawashima교수의 설명과 시범을 통해서 기의 흐름을 조절하는 법, 명상(Meditation)하는 법을 배우기도 한다<sup>6)</sup>.

6) F.Kawashima 교수는 Asian Studies Program에서 동양역사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필자



벚꽃 축제의 다채로운 행사



벚꽃 축제에 마련된 일본음식들

#### 4. Japanese Club의 역할과 성과

지금까지 외국인 일본어학습자에 대한 일본문화교육이 학생들에 의한 클럽 활동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BGSU Japanese Club의 예를 통해서 확인 해보았다. 앞에서 본 것처럼 BGSU Japanese Club는 침체되어있었던 BGSU Asian Studies Program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많은 학생들을 그 program에 끌어들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실에서 일본어만을 배우다 흥미를 잃고 있었던 학생들, 일본문화와 일본어에 관심을 가질 기회가 없었던 학생들에게도 새로운 호기심과 관심을 갖게 하고 동시에 일본문화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 만큼 BGSU에 있어서의 일본어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Japanese Club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클럽활동으로서 계속 발전해나가고 있다. 여기서 BGSU Japanese Program의 일본어교육을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또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필자 나름대로 몇 가지로 분류해서 제시해보면 다음(1)~(11)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1)일본문화와 일본어에 대한 홍보역할

일본을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었던 학생들에게 Japanese Club을 통해서 일본문화와 일본어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2)일본어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유발하는 역할

가 방문하고 있었던 2006년 초에 불치의 병으로 타계했다. 하버드대에서 학위를 받은 유능한 학자이면서 연세대학교에서도 수학한 적이 있으며 부인이 한국인이다. 한국을 비롯한 동양역사에 대해서 지식이 깊고 한국에 대해서 이해심이 많은 학자였다. A.K.Jhones와 함께 BGSU Japanese Club을 만들고 활성화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했다.

일본어에 관심이 없었던 학생들이 Japanese Club에서 일본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고 일본어를 배우고 싶은 호기심과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3)일본문화의 체험의 장의 역할

일본문화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에게 일본에 가지 않고서도 Japanese Club을 통해서 일본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4)일본 대학과 교류의 계기를 마련하는 역할

Japanese Club을 통해서 일본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해외 인턴쉽 제도, 교환학생제도, 여름 프로그램이 새로이 만들어지고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5)교환학생으로 온 일본인 학생들에 대한 관리와 상담자 역할

일본에서 온 교환학생들이 Japanese Club 활동을 통해서 외로움과 향수를 달래고 Japanese Club 학생들과 빨리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또한 미국 생활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상담 받을 기회를 제공했다.

(6)미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간의 국제적인 교류의 장의 역할

일본에서 온 교환학생들과 일본문화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BGSU 학생들이 같은 대학생으로서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Japanese Club 학생들에게는 같은 또래의 일본인 대학생들과 클럽활동을 통해서 자주 만나서 일본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었다. 그리고 일본인 교환학생들은 BGSU에 1년마다 교대로 머물다 가기 때문에 4년을 통해서 매년 새로운 일본인 대학생들과 계속적으로 접하면서 살아있는 일본어를 경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었다.

(7)학생과 교사와의 교류의 장의 역할

학생과 교사가 교실에서와 같은 formal한 분위기가 아닌 informal한 분위기 속에서 자주 대화를 나눔으로써 좀 더 가까워지고 교사로부터 필요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었다.

(8)Japanese Club을 통한 지역사회 일본인들과의 교류의 장의 역할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과의 연결통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했다. 즉, Bowling Green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을 클럽모임에 초청해서 학생들과 교류를 갖게 하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Japanese Club 학생들을 위해서는 여러 일본인들과 직접 접하면서 일본어와 일본문화를 배울 수 있게 했고 지역사회 일본인들에게는 일본인 자녀들을 위해서 일본문화를 잘 이해하는 Japanese Club의 학생을 튜터로 소개해주기도 하고 상담도 해주면서 지역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게 해주었다.

(9)일본기업의 미국진출에 대한 자문 역할

미국진출을 원하는 일본기업을 위한 자문역할을 해주었다. 즉, 일본의 비즈니스맨과 미국의 비즈니스맨과의 교류의 연결통로 역할을 해주었다. 지역사회의 비즈니스맨 초청 강연회 등을 개최하면서 미국기업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일도 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자문역할을 수행하면서 일본기업에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에 대한 정보제공과 추천도 가능하게 되었다.

(10)교환학생, 여름 프로그램 참가자 등의 선발에 활용

교환학생, 여름 프로그램에 참가할 학생들을 선발할 때, 일본에 가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일본어를 열심히 배우고 일본문화를 체험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학생을 선발해야 하기 때문에, Japanese Club에서의 활동이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많은 참고자료가 된다.

(11) 장학금 유치와 선발, assistant 활용

일본관계 전공자들에 대한 각종 장학금을 유치하고 선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관계 전공자가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은 현재 The Christina Merrick Scholarship, The Dr. Hiroko Nakamoto Scholarship, The Mrs. Seiko McCann Scholarship, The Dr. Kiyoko Kitahara Scholarship 등이 있고 Dr. Kawashima Memorial Fund가 현재 창설 중에 있다. 장학금 외에 Nakamoto Assistant라고 해서 Dr. H. Nakamoto의 기금으로 일본에서 Assistant 한 명을 데려올 수 있는 제도로써 Japanese Club의 일을 포함해서 Japanese Program에서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과 학생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쳐 주는 튜터로서의 업무도 담당하면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 5. 마무리

이상 해외에서의 외국어교육 활성화의 한 예로서 미국의 BGSU에서의 일본어교육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BGSU Japanese Program의 경우 침체된 일본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Japanese Club이라는 클럽활동을 통한 문화체험의 교육방법을 고안해냈다. 학생들은 이 Japanese Club 활동을 통해서 한정된 수업시간에는 배울 수 없는 다양한 일본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되고, 일본어에 새로이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이 늘어나게 되고, 캠퍼스내외에서 학교와 지역사회간 또는 국제적으로 교류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클럽활동을 통한 BGSU Japanese Program의 일본어교육은 우리가 앞으로 지향하려는 종합학습으로서의 일본어교육을 앞서 실천하고 있는 모범적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일본어교육의 예를 들었지만, 이러한 클럽활동을 통한 타문화체험의 교육방법은 비단 일본어교육에 한정된 것은 아니며, 어느 외국어교육에 있어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외국어교육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여기서 살펴본 클럽활동을 통한 방법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대학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따라서는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독특한 외국어교육 방법을 고안해서 실천하고 있는 곳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종합학습으로서의 외국어교육을 지향하는 시점에서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방법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외국어교육 방법을 모색해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 【参考文献】

- 石井敏 他(1996)『異文化間コミュニケーション(改訂版)』有斐閣選書
- 鍋倉健悦(1997)『異文化間コミュニケーション入門』丸善ライブラリー
- 近藤織枝編(1995)『概説日本語教育』三修社
- 佐治圭三他監修(2004)『文化・社会・地域』東京法令出版
- \_\_\_\_\_ (2004)『異文化理解と情報』東京法令出版
- 細川英雄編(1999)『日本語教育と日本事情』明石書店
- 細川英雄(2002a)「第9章 総合的な言語活動とその学習-ことばと文化を結ぶ日本語教育へ-」縫部義憲 編『多文化共生時代の日本語教育』瀝々社
- \_\_\_\_\_ (2002b)『日本語教育は何をめざすか-言語文化活動の理論と実践』明石書店
- \_\_\_\_\_ (2002c)『ことばと文化を結ぶ日本語教育』凡人社
- \_\_\_\_\_ (2005)「総合学習としての日本語教育、6 ことばと社会」『新版日本語教育事典』大修館書店
- 山田 泉(2001)「第2章 異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と日本語教育」青木直子他編『日本語教育学を学ぶ人のために』世界思想社

## 要 旨

本稿は、日本語教育に「クラブ活動」を取り入れ、日本語学習(クラス内)と日本文化体験(クラス外)を同時に実践しているBGSU Japanese Programの日本語教育方法について論じたものである。

日本語に興味を持つ学生を増やし日本語教育を活発にさせるためには、何よりも学生たちに日本の文化に接する機会を多く与え、それに興味を持たせることが大切である。ところが、最初から日本語に興味を持っている学生も少ないし、授業に参加したとしても日本の文化を直接体験できる機会はほとんどないので日本語だけを勉強しているうちに途中であきらめてしまうケースも多い。BGSU Japanese Programの場合も例外ではなかった。そのような過程でA.K.Jhonesによって考案されたのがクラブ活動による日本語文化体験である。即ち、それまで落ち込んでいた日本語教育をより活発にするための一つの方法として、「Japanese Club」という学生の集まりを作り、そのクラブ活動を通して日本語と日本文化を体験させることを考案した。学生たちはこのJapanese Club活動を通して、限られた授業の時間には勉強できない様々な日本文化をインフォーマルな雰囲気の中で直接体験できるようになり、また日本文化を体験することによって新たに日本語に興味を持つようになった学生も増えてきた。さらにキャンパス内だけではなく、キャンパス外でもBGSUと地域社会またはBGSUと日本の大学といった地域的・国際的交流関係も持つようになった。このような意味で、クラブ活動を通じたBGSU Japanese Programの日本語教育は、我々が目指している総合的活動としての日本語教育を先に立って実践している模範的な事例と言えらる。

本稿では日本語教育の例をあげたが、クラブ活動を取り入れたこのような教育方法は日本語教育だけに限られるわけではなく、外国語教育全般に適用可能であると考えられる。勿論、外国語教育を活発にするための方法は他にも色々あり得るし、大学や他の教育機関でもそれぞれ異なった教育方法を考案し実践しているところもあるだろう。今後は未来の総合的な活動としての外国語教育を目指して、外国語教育がより活発になるために色々な教え方についての情報を交換しながらより効果的な方法を見つけ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

キーワード：日本語教育、外国語教育、文化体験教育、クラブ活動、日本語クラブ、BGSU

투 고 : 2008. 5. 31

1차 심사 : 2008. 6. 14

2차 심사 : 2008. 6. 28

住 所 : (449-70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리1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電 話 : 031-201-2243, 010-9818-8133  
e-mail : kjyart1@hotmail.com